

HDPE, 12월 내수가격 동결 불가피

11월 톤당 80만-85만원 거래 ... 내수가격이 수출가격에 비해 낮아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내수가격이 Film 그레이드 기준 11월 톤당 85만원으로 동결된 가운데 12월 내수가격도 인상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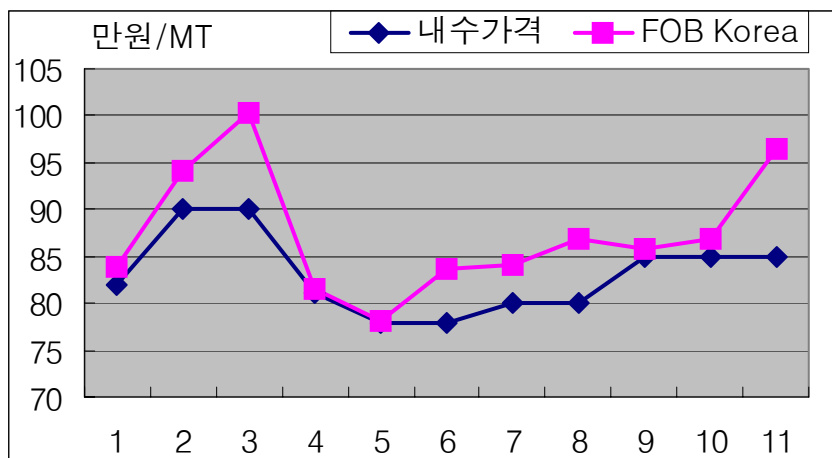
HDPE 생산기업 관계자는 “HDPE 국제가격이 톤당 750달러대를 돌파해 내수가격이 90만원대를 호가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내수경기 침체로 가격인상이 어려운 상태로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추가인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HDPE 국제가격은 중국수요와 호남석유화학의 No.3 플랜트 가동중지 등의 여파로 국제수급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HDPE 생산기업들이 11월 내수가격을 톤당 5만원 인상하려 시도했으나 수요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난항을 겪어 동결 또는 1만원 인상에 그쳤다.

HDPE 생산기업 관계자는 “Film 그레이드를 기준으로 톤당 85만원이 수요기업들의 최대 구매가격으로 나타나 12월 추가 가격인상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HDPE는 12월 Film 그레이드 수출가격이 톤당 750달러에 육박해 내수가격을 톤당 90만-95만원까지 인상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가공기업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가 소비재 수요감소로 이어져 HDPE가 톤당 90만원에 달하면 공장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HDPE 가격추이(2003)



HDPE Film 시장은 12월 들어서도 자금회수가 어려운 상태로 12월 가격인상은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11월 HDPE 가격은 수출중심의 사출, 타포린용 HDPE 가공기업의 자금력이 Film 그레이드 가공기업에 비해 뛰어나 톤당 3만-4만원 인상됐으나 Film 그레이드는 톤당 1만원 내외 인상에 그쳐 평균 85만원에 거래됐다.

HDPE 사출 및 타포린 그레이드의 내수가격은 국제가격보다 7만-8만원이 낮게, Film 그레이드는 5만-10만원 낮게 거래돼 국내 HDPE 생산기업들은 내수 공급물량을 수출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10월3일 No.3 플랜트 폭발사고가 있었던 호남석유화학은 12월 들어 No.3 플랜트를 제외한 No.1, No.2 플랜트의 정상가동과 현대석유화학의 HDPE 공급으로 내수공급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석유화학은 장기계약한 일부 거래처를 제외하고 내수시장 중심으로 HDPE를 공급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은 No.3 플랜트 폭발사고 이전 월평균 1만톤의 HDPE를 수출했으나 폭발사고 이후 월평균 3500-4500톤을 수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